

# “잘못된 길 바로 잡는 것이 깨달음이자 불자 역할”

〈깨달음〉 남양주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 “간화선 보급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인터뷰 | 한국선학회장 송묵 스님

한국선학회장 송묵 스님(사진)은 이번 하계 워크숍을 계기로 간화선 보급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은 미래불교를 이끌고 나갈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에게 한국의 불교문화, 특히 선문화를 알리는 것이 바로 선 중흥의 첫걸음입니다.”

간화선의 위기로 평가 되는 한국불교, 각 사찰과 시민선방에서는 화두를 들고 정진하고 있는 수많은 출·재가 납자들을 볼 수 있다. 위기로 평가받는 데에는 그 무엇보다 청소년 불자들이 선문화를 멀리한다는 데 있다.

법회와 각 불교동아리에서 경전 공부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참선 수행, 특히 화두 참구는 학교 동아리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한



송묵 스님은 이날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며 학생들이 보다 쉽게 선을 알 수 있도록 노력했다.

“참선을 생활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립학 교에서 방학기간 수행 토폴스테이

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스님은 “방학기간 진행되는 작은 체험이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불교를 접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깨달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열반은 무엇인가?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불자들은 어떻게 나서야 하는가?

한국선학회(회장 송묵)는 7월 9~10일 남양주 봉선사(주지 인묵)에서 하계워크숍을 개최했다. 광동고등학교 학생 80여 명과 지도법사, 교수진 등 1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봉선사 회주 월운 스님이 ‘깨달음’,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이 ‘열반’에 대해 각각 법문했다. 이날 법문과 워크숍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 깨달음은 행동이다

월운 스님은 9일 깨달음에 대해 자리이타를 기반으로 한 정인정과의 행동이라고 법문했다. 다음은 스님의 법문 내용이다.

깨달음을 위한 삶은 없습니다. 깨닫고 나면 세상은 할 것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부처님을 이야기 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석가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으로 석가는 산스크리트어로 사카입니다. 이를 번역해 보면 능할 능(能)에 어질 인(仁)으로 ‘매우 어진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유래는 어디서 나왔느냐. 5000년도 넘습니다.

오랜 옛날 중부인도의 한 왕국에는 왕자 4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타마 죽어났습니다. 고타마는 당시 주식인 감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새로 온 왕비인 계모가 있었는데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왕자 4형제는 어머니와 매번 부딪힐 수 없어 새벽에 도망을 갑니다. 이들이 도망친 곳이 지금의 카필라 지역입니다. 이들 4형제는 이 땅을 개척하고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들의 아버지 왕은 왕국을 떠난 아들들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떠도는 대상들을 통해 아들들의 동향을 물었습니다.

대상들은 카필라 지역에서 이 왕자들의 소식을 접합니다. 이 왕국의 지도자들은 남쪽에서 올라온 고타마 죽어났다. 오며가며 들은 소식이 중부인도에서 온 왕손들인데 어머니와 마찰이 있어 아버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상들은 왕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이 천하를 개발해서 잘 다스리고 있다’

아버지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말로 현묘한지고, 당시 삭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살아 성공을 하고 교화를 잘하니 매우 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4형제 분파의 성이 고타마 중에 삭가파가 된 것입니다.

깨달음을 얘기하는 중에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나 어른이나 불자로 자부한다면 조상의 이름을 알 듯 부처님의 명호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야 겠지요.

이런 것을 보면 불교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어머니가 죽고 온 계모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모와 싸워야 합니다. 아니면 순순히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 현재 불교 물러빠졌다

오늘날 불교는 너무 물러빠졌습니다. 참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뎌야 계모의 살인 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불교의 진면목이 나옵니다. 불교는 남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나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왕자들이 길을 떠나 새 왕국을 개척해 현묘한 석가족의 시조가 됐듯 불교의 기본철학은 상대방을 정도로 이끌면서 피해를 주지 않는 현명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명한 판단 아래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지적을 해야 하고 주먹을 내두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집에서 높았으면 좋겠다는 유혹을 버리고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 깨달음까지의 수행이 중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신혜행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먼저 신(信)은 부처님 말씀에 공감하고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을 목표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혜(慧)는 무조건 이런 믿음에 따르는 것이 아닌 지혜를 발휘해 마음 속의 진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고쳐야 할 것을 아직까지도 답습하고 있습니다. ‘시주만 많이하면 돼’, ‘절만 많이하면 돼’ 그중 ‘물라도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선방에서 수좌들이 하는데 아닙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마구하면 미신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하나.

정인 정과를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심는 곳에 열매를 맺는다. 원인을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나쁜 씨를 심지 않으면 나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문을 들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부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핸들, 브레이크, 가속페달이 잘 듣느냐를 점검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것이 깨닫기 전에 필요한 수행입니다.

행(行)은 이를 세상에 발휘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인·정과 내 언동이 옳아야 합니다. 행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맞아 죽어도 아닌 것은 NO라고 해야 합니다. 똑바로 아닌 것을 방향잡는 것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행입니다.

### 용기 있어야 불자

아닌 것은 ‘NO’ 라고 해라

꾸준한 정진으로 나를 바꿔라

불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신나고 즐겁게 놀더라도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포교에 역할을 해달라고 해 교도소와 군 부대에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교도소에는 장기 복역수와 특별법당이 있습니다. 극악수 사형수와 면담을 하는데 ‘어저대 이런 처지에 놓였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답은 똑같습니다. ‘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친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집안 환경상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술 마실 때 친구가 협박을 했습니까, 강제로 입을 벌리고 술을 부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받아서 마신 것입니까. 입을 저지른 것이 어떻게 친구 잘못입니까. 지금이라도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영느냐가 내일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불법은 요란스럽게 많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관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때 궁극적으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훈련을 잘 소화해 집에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정리·노덕현 기자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0-9호]

##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종 정 청봉 석정산 (중정실사서 : 석운오, 박선혜화) (예경실장 : 석법진)  
명예종정 명진 석범운

원로회회장 석흥선	원로부회장 석무공	원로부회장 석만월	승무원장 석원정	종회의장 석법일	기획원장 석법상	호계원장 석월오	감사원장 석동원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다우	문화원 문화원장 석지명	사정원 사정원장 석현중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운	교육원 교육원장 석무겸	
총무부장 석능현	호법부장 석대연	감찰부장 석법진	문화부장 석혜주	사정부장 석지혜	포교부장 석혜통	부원장 석운오	
재무부장 석도현						부원장 석대명	
행사부장 석명오						부원장 석범오	
의전부장 석근홍						1 국장 석대덕	
						2 국장 석해인	

교구총무원  
부산총무원장 석정은  
김해총무원장 석정해  
거제총무원장 석덕은  
대구총무원장 석창명  
창원총무원장 석범일  
진주총무원장 석덕오  
전북총무원장 석실산  
전남총무원장 석법진  
마산총무원장 석법경

비구니원  
원로회장 석효각  
원장 석창명  
부원장 석광명  
석정은 석능현 석도현  
석해안 석혜운 석수진  
석수해 석해인 석지현  
석효선 석해연

중앙위원회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대신행)  
중앙미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문화위원장 박무근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종립예술위원장 조영선(무혜심)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 055364-4747 / FAX : 055364-4849

### ◆ 입종 안내 ◆

###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근부스님에 한함)
- \* 법률법률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중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진주'에 있으나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누구나 부처될 수 있지만 아무나 부처는 못된다”

〈열반〉 남양주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 불자라면 불자같이 살아야

밀운 스님은 7월 10일 법석에서 열반에 대해 모두에게 있지만 그 행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밀운 스님의 법문 전문이다. 열반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열반이 무엇이나 부처님이 왕자의 직위를 버리고 출가한 이유가 사실은 열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생로병사를 타파하기 위해 출가하셨는데 생로병사를 여의는 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부처님은 생로병사 없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출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왕실에서 편안히 호의호식했지만 밖에는 늙고 병들어 죽는 사람 등 가지각색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 “아! 늙어 병들어 죽는 것은 파도와 같고, 꿈과 같구나. 영원한 것은 아니구나. 영원한 것은 무엇이나. 바로 열반이다” 바로 이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열반은 한세상 살다 돌아가시면 열반이라 합니다. 보통 선현이 돌아가면 열반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말로 치면 귀신은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열반의 인도말인 니르바나는 그런 것입니다. 몸은 없어졌지만 혼은 보이지 않는데 있고 그 것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반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육신의 본원체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화장을 하면 타 없어지지 영혼이 된다고는 얘기 안합니다. 부처님은 그 것까지 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혼, 즉 자성과 마음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당시에 부처님의 모든 경계 중 색경계는 없어지지만 그 것의 혼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중생계는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외 생명체에는 열반 얘기는 하지 않

습니다.

### 유정 무정 모두 열반해

지금 밖에 초목이 우거져 있는데 이 초목은 열반에 들니까 안들니까? 우리는 하찮아 보이면 열반에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들도 열반에 든다고 했습니다. 모양만 다르지 그 본원체는 같다고 하셨습니다.

〈반야심경〉에는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유정무정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장자를 보십시오. 죽은 나무입니다. 누가 봐도 생명이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허공에는 형상이 없습니다. 만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 모두의 성품은 모두 부처

### 행동이 짐승과 부처 다르게 해

### 열반 위해서는 부처같이 살아야

부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 중생에게 가르치려고 45년간 설법하신 것입니다. 열반 하나 가르쳐 주려고 45년간 설법하신 것입니다. 열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열반이지 근원이 없습니다.

이 우주 내에 세상 내에 모든 이름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본래 이름이 있습니까, 본래 없습니다.

열반도 허공같이 없는데 한세상 살다 돌아가시는 것을 불러 살아생전은 마음이라 하고 돌아가신 후에 열반이라 하는 것입니다. 열반을 우리말로 혼이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하고, 중국말로 환귀분처한다. 제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럼 열반은 얼마나 우주 내에 있느냐. 끝이 없습

니다. 이 우주가 생길 적에 내가 생겼고 나라는 것이 없어질 때 우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 됐습니다. 오온,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는 흩어졌다 뭉쳐서 이 세계를 구성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색이 색이 아니고 공이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은 오래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천은 어디 있느냐. 그것만 알면 세상만사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싶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 열반 위해 부처같이 살아야

여러분도 모습은 변합니다. 100년 안에 썩고 타서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근원은 1분이라도 썩지도 않고 타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시방세계 아니 계산 곳이 없습니다. 우주 생길 때 같이 계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천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을 왜 부처님이라 할까요. 그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너도 부처 나도 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님니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깨닫고 열반이 먼저 알아야 너도 부처 나도 부처입니다. 너도 부처 나도 부처는 그 전 성품이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지나치게 먹고 비틀거리며 가다가 전봇대에 오줌을 싸고 자면 개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행동과 때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처님답게 살아야 부처님입니다. 본성은 같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스님은 스님답게 행동해야 스님입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사람입니다.

이 우주 내에 8만 4000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것들이 뭉쳐졌다 헤어졌다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같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이 수없는 세월 속에 뭉쳤다 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적이며 아등바등 살 필요도 없습니다. 느긋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노덕현 기자

## 한국선학회의 이색 하계 워크샵

한국선학회의 이번 워크샵은 여느 학회·학술단체의 워크샵과 달리 청소년들이 참가한 선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8정도에 맞춘 8개 팀으로 나눠져 참선 수행과 숲길 명상, 108배, 발우 공양 등 템플스테이 일정과 함께 간화선 화두 참구 등

을 습득했다. 특히 팀별 레크리에이션 형식으로 진행된 교육 일정은 딱딱한 형식을 탈피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프로그램에서는 절하는 법을 시작으로 불교기 본예절을 비롯해 교종 본찰로서 교육사업에 가장 먼저 진출한 봉선사의 역사, 광동학교와 봉선사의

인연, 불교인재봉사의 중요성 등 설명이 이어졌다. 주진영 학생은 “방학을 맞아 봉선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템을 이뤄 여러 가지 체험과 놀이를 즐겨서 좋았다”고 말했다.

광동교 위효승 지도교사는 “학교 측에서 자발적으로 선 수행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집해 왔다”며 “학업 병행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경전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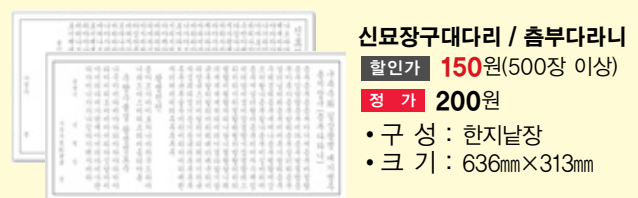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쑤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가 200원  
• 구 성 : 한지날장  
• 크 기 : 636mm×313mm

※ 여러종류의 사경책·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리(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29호 쑤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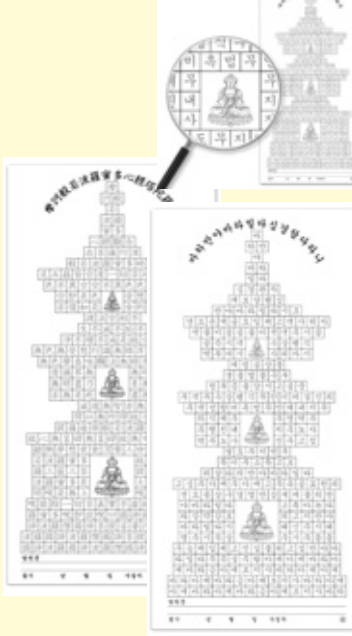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표 지 : 레자크지 옴셋 4  
• 크 기 : 435mm×300mm

### 사경지

반야심경 탐사경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가 200원  
• 구 성 : 한지날장  
• 크 기 : 636mm×313mm  
• 종 류 : 한문, 한글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종이영가웃 (남자/ 여자/ 동남/ 동녀/ 수자)



A형-남 정가 1,500원 A형-여 할인가 1,200 (100벌 이상)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C형-남 정가 1,200원 D형-여 정가 1,100원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할인가 950 (100벌 이상) 할인가 900 (100벌 이상)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웃 정가 9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700 (100벌 이상) 영가천도대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할인가 800 (200개 이상)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세요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 농협: 121068-56-042256 ◆ 우체국: 612416-02-031008 [예금주: 강태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금강반야바라밀경(우리말)**  
할인가 1,800원 (100개 이상) 정가 3,000원 (102페이지)

**금강경 독송용**  
할인가 2,400원 (50권 이상) 정가 4,000원 (144페이지)

**금강경탐대라니** 정가 250원  
할인가 180원(600개 이상)  
• 크 기 : 53×180cm

**한지집은 영가웃/위패**  
각100개 30,000원  
• 남/여/ 여자웃/ 위패

**종이신발(남/여) 종이침신 1컬레**  
할인가 1,300원 (100벌 이상) 정가 1,600원